



저 안에 그들이...

침몰된 천안함 함미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12일 백령도 연화리 앞바다에서 민간해난구조업체 요원들과 해군 해난구조대 관계자들이 함미 부분에 쇠사슬 2개 결색을 완료하고 함미 부분을 연안쪽 수심 25m 지점으로 이동시키면서 함미 상부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40mm 부포, 부포 바로 앞 함대함 미사일인 하퐁 미사일 발사관 2개, 어뢰발사대 등이 선명하게 보인다. 가장 뒤쪽에 자리잡은 76mm 주포는 수면 아래에 잠겨 있어 보이지 않는 상태다. /연합뉴스

천안함 함미 모습 드러내

세번째 체인 연결후 금명 인양

백령도 연안쪽 이동

침몰한 천안함의 함미가 침몰지점에서 4.6km 떨어진 백령도 목표지점으로 옮겨졌다. 굳은 기상이 호전되면 빠른 시일내에 인양작업에 돌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5면>

군과 인양업체는 12일 "사고 해상에서 풍랑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기상이 악화됨에 따라 함미를 백령도 근해 방면으로 4.6km가량 이동시켰다"며 "함미는 수심 45m 지역에서 25m 지역으로 옮겨졌다"고 밝혔다.

민간 대형 크레인선은 이날 오후 4시 5분경부터 천안함 함미에 연결된 두 가닥의 체인을 이용해 두 시간 가량 함미를 수중으로 이동시켰다.

이동 중 수면 위로 드러난 함미에는 76mm 함포와 40mm 부포, 추적레이더실, 하퐁미사일 발사대 2개, 어뢰발사대 3개 등이 목격됐으나 연통(연통)은 보이지 않아 충격으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함미 부분의 상태로 미뤄 내부폭발이 아니라 외부의 충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어뢰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군은 이날 이동작업이 끝나면 아

에 함미 부분을 인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과 인양업체는 일단 가능성을 부인했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해상에서 4.6km를 이동해 수심 20m 지역으로 옮겨짐에 따라 함미를 다시 바닷속으로 들여보내고 나서 풍랑이 수그러들면 마지막 세 번째 체인을 연결해 인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인양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면서 "현재 풍속이 30~40노트이고 파고가 3~4m이기 때문에 만일 들어올린다면 후속작업을 위해 리브(Rib)나 바지선이 이동해야 하는데 기상악화로 현재 나올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태로 들어올릴 경우 물 밖에 나오는 순간의 하중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오늘중 인양이 어렵다는 것은 군과 인양업체 모두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인양업체 관계자도 "지금 바로 인양에 들어가면 선체의 취약부분으로 체인이 파고들 수 있다. 체인 힘을 견딜 수 있는 선체의 내구재가 유실된 상태"라며 "오늘은 안전 작업을 위해 수심이 얇은 곳으로 옮기는 작업이며 해저로 함미를 다시 내려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민주 전남지사 경선 끝내 무산 박준영 단독후보 확정

최고위 "주승용·이석형 등록 연기 안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6·2 지방선거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이 끝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광주·전남에서는 '강운태·박준영' 양두 체제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게 됐다. <관련기사 3·4면>

민주당은 12일 서울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단독후보로 추천한 박 지사를 전남도지사 후보, 김완주 현 전북지사를 전북도지사 후보, 김진표 최고위원을 경기도지사 후보로 각각 최종 의결했다. 앞으로 당무위원회의 최종 추인이 남아 있으나 절차에 불과해 이번이 없는 한 박 지사 등이 민주당 공천장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이상호 대변인은 "가능한 경선을 치르는 것이 좋은 모양새라는 내부 고민이 있었지만 민주당

절차가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등록을) 계속 연기할 수는 없어, 아쉽지만 단독 후보를 민주당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당 중앙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단독 경선후보로 등록한 박준영·김완주·김진표 후보자를 전남도지사·전북도지사·경기도지사 후보로 각각 추천하기로 의결, 최고위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예비후보와 함께 3각 구도도 진행될 것으로 보였던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 경선은 무산됐다.

박준영 지사는 오는 17~18일 경선을 거쳐 선출된 한나라당 후보와 민노당 후보로 추대된 박용두씨 등과 함께 3선 도전의 분선을 치르게 됐다. 하지만, 전남지역은 민주당의 텃밭이

라는 점에서 박 지사의 3선이 유력하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최고위원회의의 이번 후보 확정으로 박 지사는 3선에 한발 다가섰지만, 광주시장 후보 경선 후폭풍에 이어 전남지사 경선마저 무산돼 민주당은 '호남 발 바람몰이'를 시도했던 6·2 지방선거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박 지사는 이날 최종 후보로 확정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최고위의 결정은 민주당의 당헌·당규와 경선 규칙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며 "깨끗한 선거를 통해 압승으로 당에 보답하고, 전남 인구 200만 시대를 반드시 열도록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불평등 경선이라며 그동안 후보 등록을 유보해왔던 주승용 의원과 이석형 예비후보는 "전남도민과 당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민주당 중앙당은 광주시장 후보 경선 잡음과 함께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경·최권일기자 jkpark@

청소년 '사이버 통금'

자정 이후 게임 접속 못해

문화부 9월부터

정부가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 이용 금지 대책을 실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2일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게임 접속 제한 및 피로도 시스템 도입 확대 등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우선 게임이용시간 제한을 위한 예방적 기술조치로 '피로도 시스템'과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게임아이템을 얻는 속도를 늦추는 등 장시간 게임이용을 막아주는 게임 내 시스템으로, 현재 4개 몰래게임(RPG)에 적용되고 있으며 연내 19개 게임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문화부는 '심야시간 셧다운'으로 불리는 '청소년 심야시간 접속제한' 대책을 추진, 자정 이후부터 오전 8시까지 청소년이 온라인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청소년

이용 비율이 높은 대표적 게임 '메이플 스토리', '마비노기', '바람의 나라' 등 3개 게임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추후 적용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들 게임은 오는 9월경부터 청소년의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아울러 본인인증 강화를 통한 주민번호 도용을 막도록 게임 이용자에 대한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게임업체에 요청하기로 했다. 가정에서의 효율적인 자녀 게임이용 지도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게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부모들은 이를 통해 게임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문화부는 가정에서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해 자녀의 게임 이용 내역을 확인하고 게임 접속 제한을 허용하는 서비스인 '자녀 게임이용관리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호남예술제
접수기간
미술·작문 부문
5월 6일(목) ~ 13일(목)
http://art.kjmedia.co.kr
062/220-0541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움으로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4·19민주혁명 50주년 기념행사
4·19 민주대장정
4·19대장정 50주년 기념행사는, 4월 18일(일) 오후 3시,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광주광역시 남구 남문로 44번길 1)에서 개최됩니다.
행사 2010년 4월 18일(일) 오후 3시 ▶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광주광역시 남구 남문로 44번길 1)
1. 4·19대장정 출발식 (14:00~15:00)
2. 4·19대장정 출발식 (15:00~16:00)
3. 4·19대장정 출발식 (16:00~17:00)
4. 4·19대장정 출발식 (17:00~18:00)
5. 4·19대장정 출발식 (18:00~19:00)
6. 4·19대장정 출발식 (19:00~20:00)
7. 4·19대장정 출발식 (20:00~21:00)
8. 4·19대장정 출발식 (21:00~22:00)
9. 4·19대장정 출발식 (22:00~23:00)
10. 4·19대장정 출발식 (23:00~00:00)